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유력 대선 주자로 주목받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권 도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석패, 지지 여부를 떠나 지역민의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광주·전남 지역 1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와 20%대의 득표율 격차에도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결선투표 티켓을 거머쥔다는 이 전 대표 진영의 원대한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패배에도 빛났던 품격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전체적으로 0.29% 포인트 차이를 남지 못하고 결선투표 확보에 실패하긴 했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라는 기적 같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만약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 득표수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50.29%)이 49.32%로 내려가면서 결선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가 이뤄졌다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직후, 무효표 처리에 대해 이의 제기했으나 당무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패배를 즉각 수용하고 이 지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

이낙연과 호남 정치

히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강물이 되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고 했다. 개인을 넘어선 시대적 화두를 제시, 호남 정치의 품격을 보인 것이다. 순회 경선에서의 잇따른 패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토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은 물론 결선투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에 충실하며 패배를 수용했다. 그렇게 그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됐다.

당초 정치인 이낙연에게 '대권'은 거리가 있었다. 지역구 4선을 지내고 전남 지사에 올랐을 때만 해도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잘 풀렸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대가 사람을 놓아두지 않는다고 지난 '쫓겨 대선'은 정치인 이낙연을 '시대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한 것이다. 이 총리는 민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국회에서 야당 공세를 논리적인 답변으로 돌려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 갔다.

역대 최장수 총리(2년7개월)라는 타이틀을 뒤로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다시 섰을 때, 그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중료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8월에는 민주당 당권까지 거머쥐었다. 이제 대권 도전 티켓이 그리 멀지 않게 보였다. 하지만 당 대표의 자리는 만만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추-윤(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올해 1월 국민 통합 카드로 내세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코로나19로 지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성희롱 추문에 따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처리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구까지 고쳐 가면서 후보 공천을 강행했

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몹시 뼈아픈 지점이었다.

문 대통령의 후광과 친문 주류의 지원에 가려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은 그의 대선 가도에 치명적 타격이었다. 국무총리로서 관리의 리더십이 평가를 받은 반면 여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 위기의 시대를 타개할 강력한 리더십은 부족해 보였다. 결국 유력 대권주자 자리를 이 지사에게 내주며 여권 2위 후보로 내려앉았다. 그는 진정성을 무기로 마지막까지 분투했으나 결국 대권 도전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논란에 휘말리며 브랜드 정책 등에서 전략적 실패가 있었고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민심에 가까이가다가 지쳐 지쳐 결국 패배했다. 준비된 주자인 것은 확실했으나 민심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이제 새로운 도전 나서야

친노(친 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대선과 관련 "지도자는 건달 끼가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은 함의가 깊다. 정치인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간적 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수재형 정치인으로 몸으로 부대끼는 현장 투쟁형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만든 지점일지도 모른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권 도전 실패로 향후 10년 내에 광주·전남 지역 출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원 중에 초선이 즐비한데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호남 정치의 현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호남 정치가 이미 총정에도 밀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안타까운 실패는 앞으로 호남 정치에 타산지석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 호남 정치권은 차기 대선에서 4기 진보 정권 창출에 역할을 하면서 정치력을 키워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나서야 한다.

은펜칼럼



고성혁
시인

'인간 극장'에서 봤다. 6년차 33세의 농부였는데 아내,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외딴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약은 물론 농기계도, 비료도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었다. 수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규칙대로 도랑을 파던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설명했다. "내가 못하면 자식이 하고 자식이 못하면 손자가 대를 이어 언젠가는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경작하는 밭을 우공이산의 태행(太行)밭과 왕옥(王屋)밭이라고 부르며 날마다 땅을 팠다. 그의 스스럼없이 웃는 모습에 주변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생각건대 그는 실천하는 철학자였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끼 눈 속에 또렷이 저장될 것이라고 말하는 젊은 아내를 보면서는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듯한 경외감을 느꼈다.

때마침 우리 산골 옆집을 매입한 양반도 집터를 다지기 위해 경계 측량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짜기라도 한 듯 우리 마당 일부가 실은 그분 땅이고, 우리 텃밭의 일부를 그분 담장이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문득 그 젊은 철학자로부터 얻은 삶의 방식을 실천해 보고 싶어 그

일어서야 보이는 풍경

새로운 경계에 하심(下心)과 정성으로 돌담을 쌓기로 했다. 길이는 대략 2m 정도. 비 오는 날 땀 흘리며 물길을 내던 그 젊은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변의 허물어진 담벼락과 개천 바다에서 며칠 동안이나 땀과 싸우며 돌들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어긋장을 놓듯 가로로 큰 돌들을 쌓아 올리고 작은 돌맹이들을 중간의 빈틈에 밀어 넣었다. 모든 형태의 돌들은 제 생김 모양대로 쓸모가 있었다. 공간에 따라 둥근 것은 둥근 대로, 네모난 건 네모난 대로, 길쭉한 돌은 길쭉한 대로. 모난 돌들도 모난 틈을 이용해 아귀를 맞추면 훌륭하게 모양을 내주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는 진실을 새기는 동안 일은 조금씩 진척되었고 드디어 우리 부부는 그 일을 마무리 지었다.

끝내고 멀리 서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린 돌담을 보며 느꼈던 열락이라니. 일어서야 비로소 풍경이 보인다는 말, 이런 뜻이었을까. 사진을 찍고 손뼉을 치며 우리의 거사를 자축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외출했다. 그러나 외출에서 돌아온 우리는 뜻밖에도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돌담의 돌들이 등성등성 빠져 영락없는 씨레 이빨이었다. 터 뒤편이 공사하던 현장인 옆집을 살펴봤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막 레미콘을 부어놓은 듯했는데 그 위 양생을 위해 덮은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돌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었다. 돌 하나하나, 용도에 맞춰 고른 사람이 나였으니 그 돌들은 내가 가져온 게 분명했다.

대면에 속이 상한 나는 일하는 인부들에게 이 돌들이 왜 여기 있느냐고 따졌다. 한 사람이 여러병병해 나를 보더니 다른 사람들 통해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는 당황

한 채 멀쩡이 서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추레한 작업복에 겹겹이 탄, 키 작은 그 외국인에게 왜 당신 마음대로 남의 돌담을 망가뜨렸냐고 소리를 높였다.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사람은 머뭇머뭇 양생이 끝나면 본래의 돌담 위에 올려놓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나라가 다르니 문화도 다를 수밖에. 그의 말을 들으며 성마른 내가 또 우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

내 고향 섬에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 함께 부대졌던 이승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을 환송하는 것이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섬을 방문했던 직장 동료들이 장구를 치며 노래 부르던 광경을 보고 놀란 듯 습이 떠올랐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과했지만 그이는 이미 상처를 받은 얼굴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필요한대로 들고 나는 물건이 아니니 당연한 게 아닌가.

밴댕이 같은 소갈마리. 그땀 땀이 몇 개에 심상한 내가 실망스러웠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네 게 내 것 없이 가져다 쓰고 그 자리에 되돌려 주곤 한다고 했다. 돌담을 쌓겠다고 결심하며 세웠던 젊은 철학자의 경우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외국인 근로자의 치열한 삶에 반의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는 왜 잦은 분노로 주변을 아프게 하는 걸까. 반성하는 게 인간이라지만 간대없이 이어지는 미숙함으로 나의 심연 또한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 부디 그 근로자가 원하는 꿈을 이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 젊은 철학자의 성찰 또한 응송깊어져 이 사바세계의 여러석음이 쉼물처럼 사라질 수 있기를 빈다.

社說

용도변경 개발수익 어디 '대장동' 뿐이겠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업체나 공기업 등이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개발 수익을 챙기는데 비해 지역사회나 공공에 기여하는 바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녹지·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이다. 이 사업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남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영주택은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특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나누시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광주에서도 평동 지역이나 산정지구, 일신·전남방직 부지, 금호타이어 부지 등이 도시개발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업·녹지 지역인 이들 지역을 주거·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수익이 어느 정도 일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공공개조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비교보다는 수익 추구를 호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공동사업으로 공공이 환수할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확정했음에도 임정환 불로소득이 민간에 흘러 들어가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 수익을 사전에 추정해 공공 기여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와 나누시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젠 새롭게 거듭나야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과학기술을 융합연구단 기술사업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IST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엇

위해 의원실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텝을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한다.

지네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Q사로부터 스텝을 1만6300주를 받았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융합연구단 단장인 B교수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스텝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규정도 없었고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광주과학기술원이 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A씨에게 스텝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텝을 거래를 들이지 않

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고 새로운 출판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제 당초 고급과학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보다 굳건히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無等鼓

화순군 북면에 있는 아산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적이 있다. 2019년 11월, 이 학교가 입학생이나 전학생에 관계없이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 실험은 성공했지만 아직도 전남 농어촌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은 하루 평균 65명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 18세-39세 청년 인구도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적은 실정이다.

아산초등학교는 그동안 주변 학교 네 곳과 통폐합을 했지만 전교생은 27명에 불과했으며, 당시 6학년생 열 명이 졸업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입생 두 명을 포함해도 이듬해인 2020년에는 전교생이 19명으로 줄어들 위기의 상황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수'를 공개했는데 전남이 0.47로 1위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

백아산 아래 자리 잡고 있어 공기가 좋고 천연잔디 운동장을 갖춘 데다, 전교생에게 개인 태블릿PC를 지급할 정도로 교육 환경은 좋았지만 학생 수 감소는 막을 수 없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무상주택 카드였다. 학교·교육청·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비어 있는 교직원 관사를 개조한 뒤 두

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는 말이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1.0 이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자 국내는 물론 캐나다·뉴질랜드에서까지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학교 측은 다자녀가정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이 가족에게 입주권을 줬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해 그제 공개했다. 인구증가률과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 89곳을 지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남이 1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투입해 소멸을 막아 보겠다는 민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보다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절실히 보인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기 고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은 두 명이 결혼해 한 명을 낳지 않는 합계출산율 0.8명대의 '초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혼이 결혼 제도로 들어갈 확률보다 이미 결혼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둘째를 낳을 확률이 더 높은 현실이지만, 2020년 기준 첫째 아이 출산 연령 또한 이미 32.3세로 다소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고 있다. 혼인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어 남성은 33.23세, 여성은 30.78세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국 평균 0.84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0.98로 전국 평균 0.88보다 높았다. 이렇듯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 유일하다.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

저출산의 해법 '성평등 사회' 만들기

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과 출생 때마다 100만 원씩 축하금 지급, 24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육아수당 지원 등 생애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산부 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저출생 정책들이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 및 교육, 네트워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출생 문제 역시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키움 지원단'을 운영하며 돌봄의 공공성, 성인지적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키움 지원단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의 임원아동 보호사 및 공공산후 관리사 파견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아이키움'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시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출생 문제를 몇몇 현금성 지원이나 사회 서비스로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자제' 현상

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그 결과 1인 가구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생의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의 출산 문제로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청년 세대의 결혼 기피와 출산 거부 현상은 현재의 성별 분업 구조와 역할 분담에 그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저출생 시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법은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일·생활 균형적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중심성 사고에서 벗어난 일·생활 균형적 관점이 성평등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시민이 고생하여 낸 세금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광주광역시는 2018년 중하위에서 이듬해에는 상위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보건·복지에서 상위권인 광주광역시와 안전, 가족, 문화·정보에서는 하위권이라는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와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개선을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